

# ‘진안 방문의 해’ 본격 추진

### ‘빨간 말의 해’ 연계 관광 전략 마련...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진안군은 2026년 ‘빨간 말의 해’를 맞아 관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본격 추진한다.

말은 예로부터 도약과 성장, 활력을 상징하는 동물로 ‘말의 귀’를 닮은 명산 ‘미이산’이 위치한 진안군은 이러한 상징성에 착안해 ‘말의 해’와 ‘진안 방문의 해’를 연계한 관광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진안군은 ‘방문의 해’ 기간 동안 체류형 관광 확대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여행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1박 2일 이상 머무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비롯해, 지역의 자연·치유·체험 콘텐츠를 연계한 맞춤형 코스를 선보여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관광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모바일 기반 안내 서비스와 할인·편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만족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별 관광객은 물론 가족 단위, 청년층 관광객까지 폭넓게 유치할 수



진안군은 2026년 ‘빨간 말의 해’를 맞아 관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본격 추진한다.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여행사 및 단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내 숙박·음식·체험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2026년 빨간 말의 해는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해인 만큼, 진안 방문의 해와 연계해 관광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다양한 여행상품과 관광 정책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진안을 찾고 머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행복콜택시 운영 전면 개선

### 이용자 교통 여건 반영 차등 운영·부정 사용 방지 대책 적용

무주군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콜택시’ 운영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무주군은 오는 2월부터 행복콜택시 이용 기준을 개선해, 이용자 실제 교통 여건을 반영한 차등 운영과 부정 사용 방지 대책을 본격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그동안 이용 횟수를 일

괄 적용하면서 제기돼 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 취지에 맞는 공공 교통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군은 차량 보유 여부와 실제 운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행복콜택시 이용 횟수를 차등 산정한다.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주민은 월 6회, 차량을 보유한 주민은 월 2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다만 차량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장기간 고장, 면허 취소·정지, 건강상 사유 등으로 실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 미운행 소명서’를 제출하면 차량 미보유자와 동일하게 월 6회 이용이 가능하다.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용자는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발 시 단계별 제재가 적용된다. 1회 적발 시 6개월, 2회 12개월, 3회 적발 시에는 영구 이용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무주=손흥기 기자

## 설맞이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20% 할인 혜택

진안군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오는 2월 1일부터 한 달간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할인은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2월 한 달간 지류형과 카드형 모두 기본 10% 할인인이 적용된다. 여기에 카드형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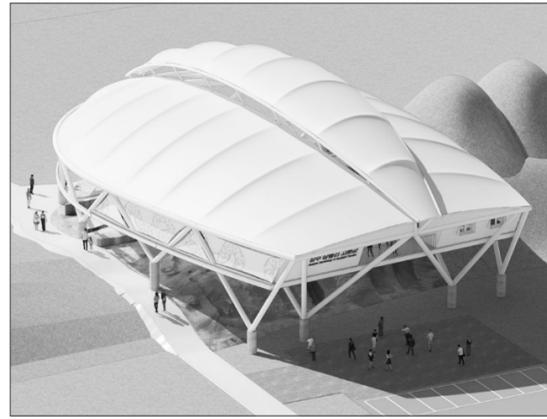
결제액의 10%를 추가로 돌려받는 ‘후개시백’ 제도를 병행 운영한다.

구매 한도 역시 기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되어 명절 선물을 준비하거나 재수용품을 구매하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농협과 우체국에서만 가능했던 카드형 상품권 발급처를 관내 새마을금



고와 신협까지 확대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경우 시스템 설정에 따라 2월 둘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삼봉리 고분군 보호돔 조감도.

## 호남권 최초 고분 보호돔 조성

### 장수군, 삼봉리 고분군 원형 보존 최우선... 조성 사업 본격 착수

장수군은 지난 26일 장계면 삼봉리 고분군 제5호분일원을 대상으로 ‘장수 삼봉리 고분군 보호돔 건축설계·전시물 제작설치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보호돔(유적발굴관)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자문위원으로 이재운 교수와 광장근 교수가 참석했으며, 행정에서는 최훈식 장수군수와 이정우 부군수 등이 함께해 사업 추진 방향과 설계 개요를 공유하고, 유적 보존과 전시·활용 방안에 대한 자문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사업은 ‘보존은 철저히, 관람은 생생하게’라는 모티브 아래 호남권 최초로 고분 보호돔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특히 장수군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서 나아가 군민과 방문객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 확장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호돔은 고분 유구의 원형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설계된다. 설계안에는 유적과 매장주체부가 있는 지반에 구조기둥을 설치하지 않는 공법을

적용해 문화유산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반영됐다.

또한 철골 트러스트 마구조 등을 활용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람 동선과 시야를 고려한 공간 구성으로 관람시설로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설 내부에는 영상부스, 무인카페부스, 관람부스, 전망부스, 관람화랑 등이 조성되며, 발굴작업공간과 전시·교육 체험물 제작·설치까지 포함해 관람 편의성과 체험 요소를 동시에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최훈식 군수는 “호남권 최초 보호돔 조성은 장수의 역사문화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이다”며 “삼봉리 고분군을 군민과 방문객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관람시설로 탈바꿈시켜 장수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이번 보호돔 조성을 통해 삼봉리 고분군을 관광객이 다시 찾는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 체험공간이자 장수 역사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 등

### 진안군보건소, ‘함께하는 보건 소통의 날’ 운영

진안군보건소(소장 문민수)는 지난 28일 오후 첫 ‘함께하는 보건 소통의 날’ 자리를 마련하여 보건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보건의로 서비스 제공, △김열병 예방 및 관리, △정신건강 증진 사업, △통합건강 증진사업, △치매예방 관리사업 등 다양한 향후 보건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역 현안 사항을 공유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보건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효과적인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임상 심리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정신건강 평가 방법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장계면 지사협 제1차 정기회의 열려

장수군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장호·임재성)는 지난 27일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추진한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행사와 나눔 감사의 밤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2026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간 운영 계획과 함께 설 명절 맞이 특화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된 연간 운영 계획에는 △홈 클리닝 사업, △효도 관광 나들이 행사 등 총 9개의 특화사업이 포함되었다.

또한 설 명절 맞이 특화사업으로는 명절을 홀로 보내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명절 음식을 전달해 정서적 위로와 생활 지원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장계면은 이번에 결정된 특화사업을 통해 명절 기간 소외감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체감 복지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다문화가정 고향 나들이 지원

무주군이 지역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정에 고향 나들이를 지원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군은 경제적·환경적 여건으로 장기간 고향 방문을 못한 다문화가정을 선정했다.

무주군은 선정된 12가정에 항공료와 공항 왕복 교통비, 여행자보험료, 현지 교통비를 지급한다.

김성옥 군 인구협력과장은 “고향 나들이는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에 힘이 되는 사업”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 지역 내 결혼이주여성은 총 236명이며, 지난 2011년부터 총 197가정이 고향을 다녀왔다. /무주=손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